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지원사업

심의 총평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지원사업'에 응모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두손 모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토요일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감각적·상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프로그램, 실험적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의는 크게 꿈다락 놀이터(신규/연속/사각)와 꿈다락 스튜디오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력이 많은 기관과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사업 내 영역별 취지와 내용에 걸맞는 사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영역별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꿈다락 놀이터(신규사업)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심사의 기본으로 두었습니다. 즉 학교 밖 지역/커뮤니티/공동체 등과의 연계성, 단순체험이나 이벤트식 프로그램의 답습이 아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력, 구성력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꿈다락 놀이터(사각지역)에서는 문화공간과 전문예술단체의 수가 타지역에 비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남부와 북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뚜렷해 사각지역 해소가 쉽지 않았지만,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심사에서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문화예술교육은 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다락 놀이터(연속사업)는 2012년, 2013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킨 팀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모니터링 평가 기준과 연속사업의 의미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꿈다락 스튜디오는 기존 주제체험, 과제수행 형태의 활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에

술교육사례를 만들어보고자 실험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던 부분이기에 본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총 100여건이 넘는 많은 양의 기획서가 도착하였지만, 기획을 해주신 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알기에 조금 더 집중하여 들여다 보고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정이 되지 않은 기관과 단체에게 있어서는 다소 아쉽더라도, 타 지원사업 또는 자체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축적해 나가기를 바라며, 선정된 기관과 단체들의 활약으로 2014년 경기도의 토요일이 즐거워지길 기대해봅니다.

2014년도 경기지역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공모지원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향후 사업 진행과 준비를 위해 참고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꿈다락 놀이터(신규사업)

- 꿈다락 놀이터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주체가 되는 팀)

기관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과의 연계성, 고유한 주제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지역/커뮤니티/공동체 및 교육 참가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심사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성과 무관한 단순 체험, 이벤트식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기관의 예전 프로그램을 단순 반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가진 특징,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공공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프로그램 기획이 아쉬웠습니다.

- 꿈다락 놀이터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체가 되는 팀)

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만한 단체의 역량(협력기관, 공간과의 관계 등), 프로그램 기획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더불어 신규 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많은 단체가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를 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단체의 경우 단순 체험 중심의 공예 프로그램을 나열하거나 문화예술교육과 무관해 보이는 극, 뮤지컬 실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문화학교의 기본 취지를 이해함과 동시에 참여자, 프로그램 내용, 단체의 장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프로그램 기획이 아쉬웠습니다.

신규 사업 신청임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취지와 기관/단체가 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적절히 조화된 기획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명료하게, 또 그림을 그리듯 스스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 내용을 기획하고 전달하는 것은 심사 뿐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들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3년 차를 맞은 토요문화학교의 취지와 내용, 성과 등이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와 더 활발하게 소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단체들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측면에서의 보완을 전제로 가급적 토요문화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미션을 가진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이들 신규 단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역에서의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장이자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 꿈다락 놀이터 (사각지역)

사각지역 사업 심의는 다른 영역 심의 보다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각지역은 특히나, 지역의 특징과 문화기반시설의 현황, 지역 아이들에 대한 이해 등 주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그리고 방법론을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령 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개인 작업실을 문화기반시설로 상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자 한다면, 왜 문화기반시설이 개인 작업실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는 기획일 때에는 아이들과 어떤 과정을 함께 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 기획안 중에 청소년하고 상관없는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경우도 있었으며, 문화기반시설과 장르를 경험하는데 그친 기획안이 더러 있어 아쉬웠습니다.

○ 꿈다락 놀이터 (연속사업)

연속지원사업에서는 하나의 장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통합교육의 여지가 없는 경우, 혹은 통합적 교육 방법론은 있으나, 나열만 되어 있는 경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문화기반 시설이 주체인 경우 얼마만큼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지도 2013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새로운 기획을 하기 위해 유명 예술인이 참여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지가 기술되어야 하고, 연속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과정을 과감히 버려야하기도 합니다. 가령 문화예술교육과 상관없는 영어 학

습이 이루어진다던지, 생태교육을 하면서 예술치료사와 협업의 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연속 사업은 더 엄중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 했으면 합니다.

○ 꿈다락 스튜디오

꿈다락 스튜디오는 올해 첫 시행인 만큼 공모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참여자와 매개자가 함께 디자인(공간탐색, 관계맺기, 주제발굴 등)해보는 실험적 프로젝트 운영 지원이 공모의 핵심 미션이었는데, 이 미션에 부합한 기획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규에 들어올 법한 장르중심의 기획안에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자와 함께 진행되기 보다는 매개자나 문화기반시설의 기획자에 의한 일반적인 기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자하는 단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꿈다락 스튜디오의 취지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수정, 보완 되어 진행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꿈다락 놀이터(신규사업), 꿈다락 놀이터(사각/연속), 꿈다락 스튜디오 심사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기반시설에서 주도했던 기획을 올해는 함께 협력했던 전문 문화예술단체가 기획의 주체로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문화기반 시설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전문 예술인들은 문화기반 시설과 지역의 특징을 잘 활용해 적절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문화기반 시설과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장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지역에 자리매김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연간 총 30회 내외 수업이 토요일에 진행되어야 하고, 문화기반시설과 전문예술단체의 협업이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약으로 삼지 말고, 토요일만큼은 청소년들과 우리들(매개자)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신나는 기획과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2014년 2월 14일

심의위원 - 김월식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 무늬만커뮤니티 대표)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문형순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서원주 (한국박물관협회 이사)

양철모 (공공미술삼거리 팀장)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 교부신청시 본 사업의 취지와 심의위원의 도움말을 수용하여 보다 내실있고 현실적합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